

‘종교인에 과세’ 원말?

종교비판시민련 국세청장 고발... 정부 사실상 ‘반대’ 불교계 “과표 기준가 이하·이중과세로 현실성 없어”

수행자와 성직자의 수입을 후원금으로 봐야 할까, 급여로 봐야 할까? 정부가 오랫동안 판단을 미루고 있는 사이 최근 한 시민단체가 성직자들의 과세문제를 집중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5월 8일 ‘종교비판 자유실현 시민연대(이하 중비련)’가 “종교인 대부분이 탈세를 하고 있는데도 국세청이 종교인에 과세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국세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재정경제부에 질의해 놓은 상태였다. 관계당국도 해묵은 조세 현안의 하나인 이 문제를 어떤 형식으로든 매듭짓고 넘어가려는 의지를 보인 것. 그러나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9일 종교인에 대한 과세문제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사실투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종교인의 활동은 직업이나, 아니면 봉사라는 다름의 여지가 있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직업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물어야겠지만 종교인 수입을 활동에 대한 후원금 성격으로 봐야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스님, 목사, 신부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교인은 물론이고 역술인과 무속인 등에게도 세금을 물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물론, 근로 외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정부가 과세에 나설 것인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현재 일부 중대형교회 목사들과 가톨릭 성직자들은 근로소득세를 자발적으로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허용석 조세정책국장은 “현재 결정된 것은 전혀 없으며 뭐라고 말하기도 매우 조심스럽다”면서 “목사나 신부들과 스님들은 상황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나서기에 앞서 종교계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조계종 법무전문팀장 김봉석 변호사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종교단체를 ‘근로조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불교계에서 근로조직의 개념을 가진 곳은 극히 드물다”며 “가톨릭처럼 상징적이라도 일부 교역직 스님들 위주로 납세에 응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불교의 경우, 자신과 가족을 위해 급여를 받지 않고 시주 받은 재화는 사회와 신도들을 포교하기 위해 모두 회향하는데 세금을 내는 것은 맞지 않고, 이미 신도들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고 그 남은 것으로 스님들에게 보시한 것을 다시 과세 한다는 것은 ‘이중 과세’라는 반대 논리로 만만치 않다. 조계종은 일단 공식적인 입장 표

명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지만 ‘종교인 납세문제’에 대한 원칙은 확고해 보인다. 조계종 기획실장 동선 스님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산출근거를 정부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얼마든지 납세의 의무를 짊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월 평균 시주가 30만 원 이하로 생활하는 독신 수행승들에게 어떤 근거로 납세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천태종 재무부장 도제 스님은 “타종단과 달리 철저하게 개인적 소유라는 개념이 없는 천태종 스님들의 시주에 대한 과세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진각종도 일반적 개념의 급여 없이 최소한의 ‘이공(시주)’으로 생활하는 행편에 과세를 논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중비련의 문제제기가 당장은 스님들을 비롯한 종교인들의 소득세 문제로 국한되었지만, 차후 종교단체가 가진 모든 재화와 수익에 대해 과세 여부가 확대될 것이 분명한 만큼, 불교계 차원의 원칙과 대응논리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조사관문을 뚫어라

병설년 하안기가 5월 12일 전국 선원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조계종 100여개 선원과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결제에 든 2200여 수행자들은 앞으로 90일간 화두타파에 매진하게 된다. 사진은 결제현장을 공개한 백담사 무급선원의 기본선원에서 좌선에 든 남자들. (각 총림 방향 결제법어 5편) 백담사=고영배 기자

공원 입장료 폐지 ‘한 목소리’ 확인

지관 스님·김재규 이사장 합의

조계종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 입장료 폐지에 대한 입장을 같이 하기로 했다.

김재규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5월 11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 같이 합

의하고, 입장료 폐지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기획예산처 등을 설득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조계종과 공단의 대표가 만나 입장료 폐지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이날 지관 스님은 “종단과 국립공

원관리공단이 좀더 강력하게 입장료 폐지 입장을 밀어 부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립공원내 산재한 수많은 사찰 문화재에 대한 공단 직원들의 소양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신규직원 채용과정에서 문화재 관련 전공자들을 선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단의 이해복 행정지원처장은 “우선은 문화재 관련 교육을 종단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용수 기자

크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년
단양 광덕사 회주 혜인 스님

도반의 향기 17면
명상지도하는 최시선 선생님

‘불교금강명관’의 세계 4면
사찰도 생생성 시대 10면

감포서 띄운 ‘발원 풍선’
日 다카치호 마을서 발견

이렇게 가까운 이웃인데...

경주시 감포 나정리 앞바다에서 띄운 한 불자의 ‘발원풍선’이 현재 탄을 건넌 일본 미야자키 현의 작은 마을 다카치호에 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풍선을 띄운 주인공은 대구 심원사(주지 정호) 신도 진삼입(54, 대구 용산동)불자. 지난 2월 12일 정월 대보름에 대구사원주지연합회 주최로 열린 방생대법회에 참석해 팔 서수정(28쌍)의 취업성취를 발원하며 풍선을 띄웠었다. 지난 3월 초, 진삼입 불자는 일본에서 온 뜻밖의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미야자키 현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제교류원 박영주씨가 다카치호에 있는 어린이들을 대신해 보낸 편지에는 진삼입 불자의 주소와 린이들의 마음도 자세히 묘사돼 있었다. 박영주씨는 “다카치호는 전교생 11명의 고카쇼 초등학교가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라고 소개하면서 “어린이들은 발에서 발간한 풍선이 언제 어디서 날려진 것인지 궁금해 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이 얼마나 가까운 나라인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경험이 되었다”고 전했다. 일본에서 날아온 한 통의 편지를 받은 진삼입 불자 가족은 “공기를 품은 작은 풍선이 일본까지 날아간 사실이 놀랍고 기쁘다”며 작은 풍선하나를 눈여겨봐 준 다카치호 마을 주민과 고카쇼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과 편지를 다시 일본으로 보냈다. 진삼입 불자의 딸 서수정 양은 한국전통

인형 캐릭터 열쇠고리와 함께 보낸 편지글을 통해 “풍선 하나가 다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나라이기에 역사적으로 얽혀있는 갈등을 딛고 일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마음을 전했다. 선물과 편지를 받은 다카치호 고카쇼 초등학교의 한 교사는 이 편지를 마을주민들에게 공개했다. 학교측은 이 ‘풍선으로 맺어진 인연’을 한일 양국의 화합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 2월 방생법회를 주최한 대구사원주지연합회(회장 법해) 관계자는 “이 일을 계기로 한국불교를 일본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글·사진/대구=배지선 기자

2006 부다피아 여름 하와이 캠프

마감입박...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본사는 지상의 낙원이라 일컬어지는 미국 하와이에서 제 3회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및 역사·문화체험 캠프를 개최합니다. 전문적인 어학교육과 함께 역사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들의 영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미국 현지를 체험함으로써 어린이 청소년들이 높은 안목을 갖춘 세계인으로 자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 참가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기간: 7월 27일~8월 17일(21박 22일)
- 참가비: 280만원(여권·비자수수료 별도)
- 정원: 선착순 40명
- 참가신청: 3월 25일~5월 15일
- 장소: 하와이 무랑사 문화원
- 주최: 현대불교신문
- 협찬: (재)보덕학회
- 주요프로그램
 - 어학연수- 원어선생님의 총 60시간 수준별 영어강의.
 - 문화체험- 폴리네시아민속춤 및 공연관람, 화산의 신비를 눈앞에서 익아일랜드 화산섬 탐방, 자연박물관, 돌고래쇼 관람, 훌라쇼 체험, 하와이왕국 이올라나 궁전 탐방
 - 역사체험- 한인이민의 땅서린 사랑스누능장 방문.
 - 세계대전의 격전지 진주만 관람
 - 해안스포츠- 와이키키해변 수영, 물고기와 함께 하노우마베이 탐험

문의 / 현대불교신문 사업2팀 (02)2004-8295

5. 31 지방선거에 즈음한 한국종교지도자 대 국민 호소문

화합과 축제의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한 대 국민 호소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 31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유권자들의 의견이 서로 소통되고 반영되어 화합과 발전의 그림을 함께 그릴 수 있는 선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입니다. 무관심은 바로 자신의 세금과 삶의 터전을 갉아먹는 것과 같습니다. 선거는 4년에 한번 지역 주민이 함께 대화하고 참여를 통해 스스로 결정하는 소중한 행사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훌륭한 지도자를 배출해 내는 것도 중요하며, 지역발전을 통한 경제·사회·문화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합과 축제의 아름다운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하나된 힘은 국가사회적 문제 뿐만 아니라 지구적인 환경문제, 전쟁과 기아 등 인류 공동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시작입니다.

우리 7대종교 지도자들은 5. 31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 첫째, 투표에 적극 참여하여 화합과 축제, 아름다운 선거 만들기에 동참합시다.
- 둘째, 주인의식을 갖고 훌륭한 지도자,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만들기에 함께 합시다.
- 셋째,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를 통한 민주사회 발전과 국가화합을 위해 다함께 노력합시다.

2006. 5.

<p>불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천주교 (천주교주교) 김희중 유교 (성균관장) 최근덕 민족종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한양원</p>	<p>기독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박종순 원불교 (원불교교정원장) 이해정 천도교 (천도교교령) 한광도</p>
--	--